

제8차 세계 여성불자대회 학술발표회 시상중계

# 적극적 수행·참여로 '차별' 극복해야

##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주제 논문 60편 발표

6월 27일~7월 2일 중앙승가대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의 백미인 학술발표회가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현재와 과거'를 주제로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중앙승가대 자비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 발표회에서는 10개 분야 60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학술발표회를 통해 1,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오늘날 여성불자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불평등한 제도를 부처님 법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여성불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 낮은 비구니 위상 제도 때문

학술발표회는 여성불자의 현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가장 주목받은 사실은 한국의 비구니가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윌슨 스님(미국 뉴욕 백운선방)은 "한국에서는 비구니가 선원에서 평등한 수행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사찰을 직접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에 동남아 국가의 비구니들은 비구를 도우며 허드렛일을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처럼 비구니의 위상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은 교단의 제도 탓이라고 리타 그로스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주장했다. 비구를 가르치는 게 금지돼 있던 비구니들은 스승이 될 가능성이 적었기에 수행을 외면했고 그 결과 비구니들은 본보기로 삼을 만한 큰 스승의 역할 모델을 갖지 못했다는 것. 그런 제약 속에서 비구니의 체력과 견해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로스 교수는 강조했다.

###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비구니 차별의 근거가 되는 팔경계(八敬戒)를 시대의 산물로 규정하며 부처님의 뜻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리타 그로스 교수는 "부처님이 당시의 남성주도적인 문화에 동의했고 승가의 남성주도를 보장했음은 사실"이라면서도 "<테리타타(長老尼)는 비구니의 정신적 성취를 남성과 동등한 것으로 묘사했다"며 팔경계만으로 편견을 갖지 말 것을 주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티누 동안(인도 델리대학 박사과정)도 "부처님은 여자도 깨달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티누 고이홍(델리대학 박사과정)은 "부처님은 여성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사회적 정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첫 종교적 스승"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학술발표회에서 그룹토의중인 참가자들.

### 출·재가 모두 깨달음 향한 존재

교단 내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피해는 비구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희 이화여대 교수는 재가 여성불자들이 생활과 수행의 체질 속에서 얻은 '작은 해탈'의 사회적 확산을 불교의 가부장적 문화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쇼요 다니구치 일본 간사이치대 교수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를 언급했는데, "출가불자와 재가불자의 차이는 생활 양식의 차이일 뿐 우열의 관계가 아니다. 머리를 깎았는가, 승복을 입었는가 중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同愛)의 정도가 중요하다"며 출가·재가불자 공히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부각시켰다.

한편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상덕 스님(속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사회 참여적이며 휴머니즘적인 불교의 교리는 현대 사회복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가 되기에 충분함"을 주장했다. 안옥선 순천대 교수는 생애 위기를 "유기적 생명의 일부를 이루는 인간이 그 밖의 존재들에 대해 그릇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야기된 문제"로 규정 한 안 교수는 연기와 불이 사상에 토대한 불살생, 자비, 자애 등의 실천을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 ■고형곤 박사 타계... '여적과 추모'

## 말타고 승천하신 자리에 영구히 빛나는 '학업'

청송(廳松) 고형곤(高亨坤) 선생님은 6월 25일 새벽에 별세, 29일 장례를 모셨다. 장지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장지리. 앞으로는 잔잔한 야산이 멀리까지 곁을 이뤄 연해 있고, 뒤로는 아트막한 산 줄기를 따라 커다란 철마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것은 천마산을 함께 형성하고 있다.

백수(白壽)를 하신 선생은 1906년 전북 임피에서 출생, 이리농림학교를 마치고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했으며, 본과에서는 철학을 전공하셨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동아일보에 입사하셨다. 월간 <신동아>에서 3년간 근무하시다가 학문연구를 위해 연구실로 돌아와 연구한 지 얼마 뒤 연희전문 교수로 부임하셨다. 해방 후에는 서울대 문리과대학 철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기셨다. 58년 전북대학 총장으로 선출되었으나 4·19혁명으로 그만두고

학문적 저술로는 <선의 세계>(1971)가 있다. <선의 세계>에 실린 '선의 세계'라는 글은 이 책의 도입부이면서 선 사상을 철학적으로 입목요연하게 보여준 명문이다. '선의 존재론적 규명'은 하이데거의 후기 존재론을 가지고 선을 밝힌 대작 논문이다. 이 논문으로 선생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학술원 저작상을 수상했다. 70년대에는 '해동 조계종의 연원 및 그 조류'(1970), '추사(秋史)의 선관', '추사의 백파광증(白波妄證) 15조(條)에 대하여'(1975), '화엄신론 연구'(1977) 등을 발표하셨다. 그밖에 수필집 <하늘과 땅과 인간>(1975)이 있다.

선생은 그 '존재현전'의 입장에서 한국 조계종의 선 사상을 조명하려고 했다. 그것이 '해동 조계종의 존재현전'이다. 70년대 선 관계 논문 중 '돌보이는 것은 조선초 후기 전 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선 사상 부흥장 결구'에 대한 논쟁의 대 학장을 잠시 정리다. '추사의 백파광증 15조에 반대하여 야당인 민정당에 입당,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돼 국회의원을 지냈다. 60년대의 일이다.



故 고형곤 박사

### 내장사 암자서 10년 불교공부

### '선의세계' 등 불교관련 논문 백미

그러나 정치는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학문세계로 복귀, 활동하시다가 80년대에는 전북 내장사의 부속 암자에서 10여년간 불교 연구에 몰두하셨다. 연구를 마치고 돌아오기 위해 고속버스 정류장에 들렀을 때, 그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놓은 카드 가방을 도둑맞았다. 80년대의 불교연구가 몽땅 달아나 버린 것이다. 실의에 빠져 그 뒤 학문적 업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90년대는 학문적 공백기로 남아있다. 말년에는 옛 생각을 더듬어 원효 연구를 완성하려고 정열을 쏟으셨으나 그때는 이미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았다. 남을 시켜 원효 연구를 끝냈으려고 온갖 시도를 다해 보았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선생은 서양 철학 연구로 출발하여 중년 이후에는 동양의 선(禪) 불교와 후설의 현상학 그리고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연구하셨다.

■스광평(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 현장 인/터/뷰

## "한국 여성불자 활동 놀라워"

"깨달음은 본마음을 비추는 거울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며 재가자는 출가자에 비해 좀더 두꺼운 먼지를 털어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서구여성 최초로 티베트의 수행승이 된 팔모 스님. 히말리야 설산의 외진 동굴 속에서 12년간을 은거 수행하여 '영적 성취를 이룬 티베트여성'의 반열에 올랐다. 지금은 '국제여성수행센터'를 세워 21명의 여성 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스님은 여성의 깨달음을 돕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여성불교의 역동적인 활동상을 보고 놀랐다는 스님은 "티베트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은 아직도 남성 중심의 사회에 순종하고 선업을 많이 쌓아 내세에 남자로 태어나기를 바란다"며 "한국의 여성 불자들이 이러한 편견을 깰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텐진 팔모 스님



## "노여움 제거해야 평화 가능"

### 리타 그로스 교수



"불교 페미니즘은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불교와 페미니즘을 접목하여 페미니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리타 그로스 위스콘신대 종교학과 교수. 그로스 교수는 승가의 남성 중심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불교의 본래 가르침은 성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로스 교수는 "남방불교에서 소멸되었던 비구니 승단이 재건되고 있고, 서구에서 여성 선지식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점차 불교계 내 성차별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0년간 직접 티베트 불교의 카규파 수행을 해온 그로스 교수는 "내 안의 노여움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지 않는 한 세계 평화도 있을 수 없다"며 명상을 통해 자신의 노여움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티셔츠 기본 색상**  
카키, 베이지, 소라, 오렌지, 연옥, 검정, 홍색, 코발트, 근색, 멜란지, 자주, 백색, 분홍, 노랑

**상담 및 주문전화**  
02) 732-1520

**2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4,000원, 유색 4,500원

**3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3,200원, 유색 3,800원

**20수 이종 라운드티**  
5,200원(아동) 5,500원(일반)

**20수 아동 폴로티**  
6,500원

**2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4,500원, 유색 5,000원

**3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3,500원, 유색 4,000원

**배색라운드 티셔츠**  
6,000원

**20수 2선 나그랑 라운드티**  
6,500원

**20수 나그랑 라운드티**  
6,000원

**면 반바지**  
백색 5,000원, 유색 5,500

**면 반바지(아동용)**  
백색 4,500원, 유색 5,000

**추천 상품**  
법구경가림타 1,500원

연꽃저금동 2,500원

동자저금동 4,000원

풍경 차갈이 4,000원

캐릭터 열쇠고리 개당 2,000원

**\* 마하몰 T-셔츠 캐릭터 \***

- 순면 20수 코마사 100% -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원단
- 순면 30수 코마사 100% - 대중적인 티셔츠로 부드러운 질감
- 사이즈 : 아동용 14호~19호, 성인용 90~110
- 단체명·사찰명 원하는 이미지 인쇄가능
- 니염비(1도당) 15,000원 추가 (인쇄색상 추가시 인쇄비용 별도)
- 최소주문수량 50장
- 기타 색상 및 로고제작은 전화상담

# 사찰수련회 및 여름볼고하기 티셔츠 기획전